

# 妙洞마을 조사연구(Ⅱ)

임충신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Report/A Surrey on a Myo-dong Village  
by Lim, Choong-Sin

지난호(218호)에 이어 각집조사를 다루면서 일정한 틀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서술했다. 이 마을의 주거는 계층적 차이와 규모의 크고 작음이 다양하고, 구조방식·집의 배치 형식등도 통일되지 않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기엔 무리가 많기 때문이다.

□ 숭절당(崇節堂)  
건립연대 안 채 · 1930년대  
사랑채 · 1 1930년대  
사랑채 · 2 1981년  
구조목조·기와  
현재 숭정사에서 열리는 제사에 대비하여 제구의 보관·임시 숙소로 쓰여져 평소엔 비어 있다. 81년 숭정사 신축시 사랑채·1를 확장해 원래는 안채와 사랑채·1로 이루어진 7자 집이며 출입구도 남쪽 길에 면한 것을 이용했다. 해방 전에도 태고정과 연관된 제실 용도로 쓰여졌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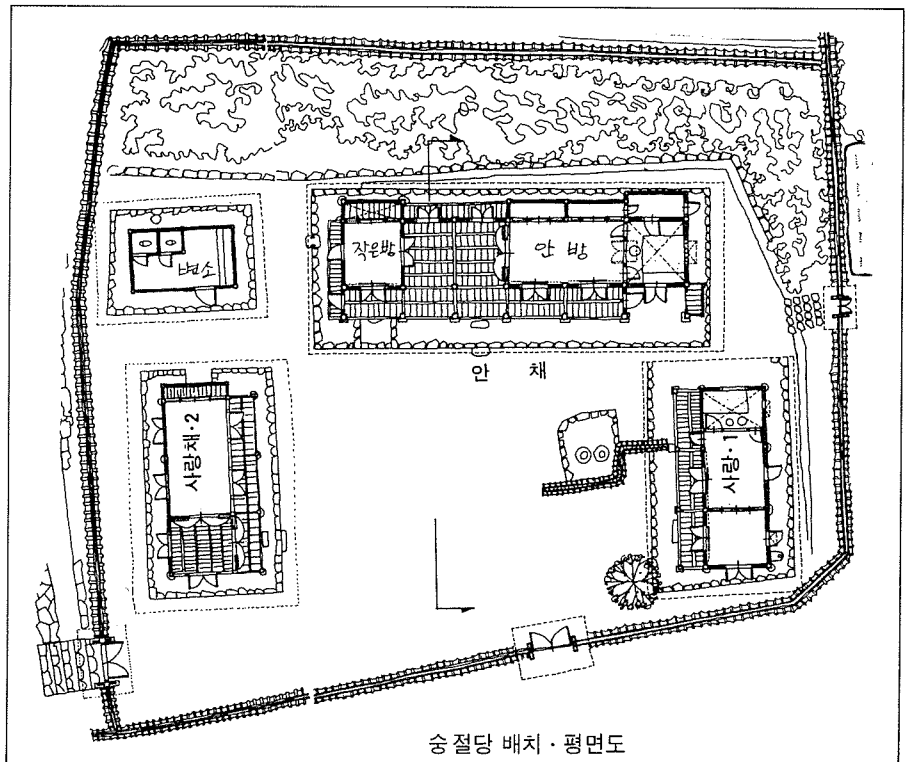
추측되며, 이는 안채와 사랑채의 부엌아궁이가 각각 1개씩인 것으로 미루어 살림집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안채의 형식은 전형적인 재실형으로 가운데 넓은 대청을 가진 팔작집인. 부엌엔 다락과 개홀개를 두어 제향용 식기들을 보관하며, 현재는 방안에 제상(祭床)을 보관하고 있다. 3평주 5량의 구조로 방의 천장은 귀틀위에 평판을 간 일제기 형식이다. 대청엔 崇正祠記가 걸려있고 대들보 위에 圓대공이 얹혀 있다. 작은방 앞 뒷마루를 30cm높여 그 아래에 난방용 아궁이를 들였다.

사랑채·1 또한 팔작집이나 구조와 재료가 빈약하다. 부엌과 방사이 마당에 내외담을 하여 안채인 재실의 관리용, 혹은 사역인의 살림방이었던 것 같다. 구조형식 역시 3평주 5량으로 앞퇴를 가진집이다.

사랑채·2는 최근 신축돼 제구용품을 보관하며 제사때 숙소로 쓰이고 있다. 역시 3평주 5량의 팔작집으로 대청에 문을 달아 마룻방으로 쓰여 수장용에 가깝다.

해방 직후에 옆집인 소요각(참봉댁)의 동생이 잠시 제금을 살았다고는 하나 살림집이라기 보다는 東岸의 재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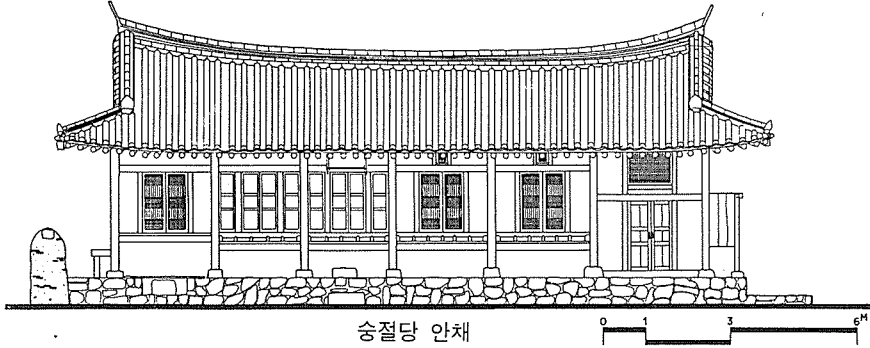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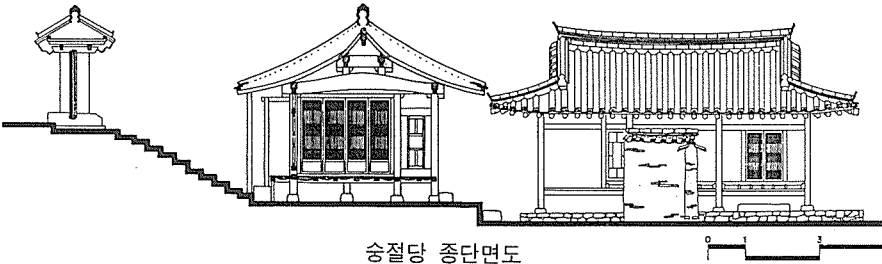
송절당 안채(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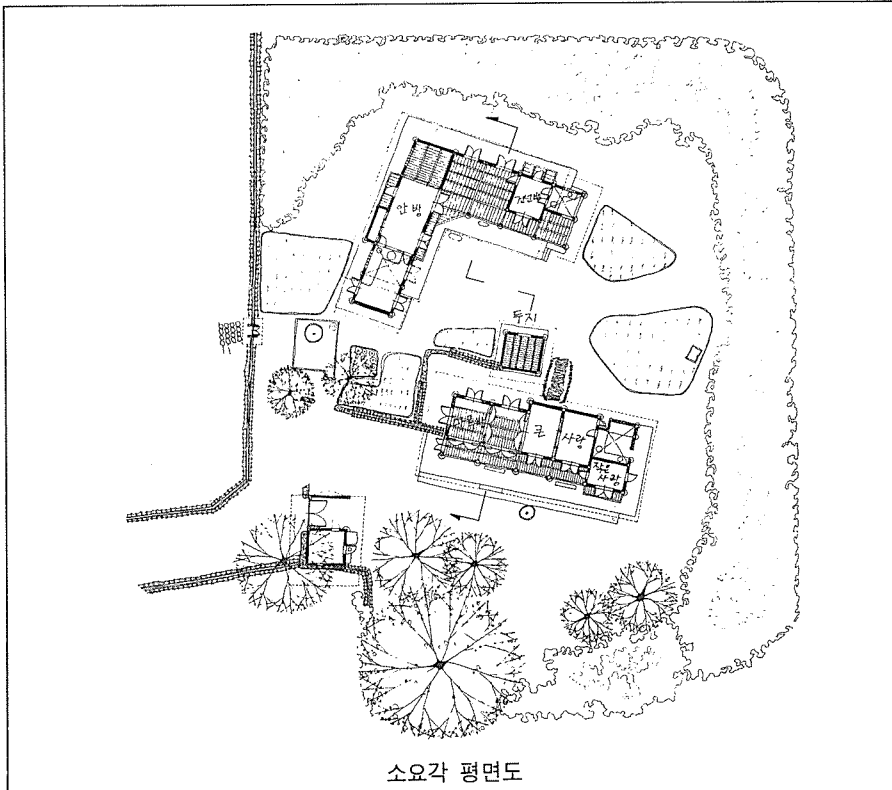
송절당 사랑채와 내외담



송절당 안채



송절당 종단면도



소요각 평면도

□소요각(逍遙閣)

건립연대 안 채 1880년대

사랑채 1930년대

구 조 목조·기와

소요각은 이 집 사랑채의 명칭으로 忠孝堂으로도 알려졌고, 마을내에서는 참봉대이라 부른다. 전체적으로 ㄱ자 배치라 할 수 있으나 현재 관리가 허술해 사랑채와 대문채는 붕괴 직전의 위험에 처했다.

대문채는 원래 3칸 평대문이었으나 북측 1칸은 아예 소실되어 붕괴의 위험때문에 사용치 않고 사랑채 담 일부를 무너뜨려 안채 출입구로 삼았다.

사랑마당은 늪과 같아 많은 습기와 잡초로 우거져 있고 사랑채 역시 퇴락한 채로 비어있다. 2중기간은 상당히 높아 원래 습기가 많은 지향임을 보여준다. 3평주 3량의 팔작집으로 소로를 수장하는 등 일제기의 양상을 보여준다. 마룻방과 중양대청 모두에 4분합문을 달았으나 서측 마룻방은 우물천장을, 대청은 연등천장을 해 구별하고 있다. 사랑채 전면에는 많은 현액들이 걸려 있어 서쪽으로부터 「六經根低」 「錦繡館」 「芝艸琅軒」 「逍遙閣」 「射白如日樓」등을 각 방의 명칭으로 삼았다.

안채는 3평주 3량의 ㄱ자집으로 건넌방 부엌에 부섭지붕을 달아냈고 안방 부엌도 역시 부섭을 달아 2칸으로 확장했다. 건넌방 부섭부분은 전면을 평난간을 두른 누마루로, 뒷면을 함실 아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안방은 2칸이며 도장방까지 확장할 수 있게 했고, 앞에 쪽마루를 달아내 대청에 연결시켰다. 대청 상부는 제대공에 소로를 부가했고, 대청안에는 냉장고 찬장을 설치해 식당의 용도로 쓰고 있다.

특이한 것은 사랑채 뒷면에 독립된 두지를 설치하고 내외담을 친 것이다. 이로써 안마당은 완전한 안살림의 공간으로 독립된다.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집이다.

□도곡재(陶谷齋)

건립연대 1850년대

구 조 목조·기와

조선조 정조2년(1778) 大司成을 지낸

西亭公 박문현의 저택이었던 것을 19세기 중반 陶谷公 朴宗佑의 재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건물은 이 당시에 증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49호로 지정됐다. 대문채는 근래 신축한 3칸 솥을 대문이다. 높이가 높고 대문위에 홍살을 달았다. 좁고 긴 사랑마당엔 대추나무와 감나무를 심는 등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구성과는 크게 다르다.

사랑채는 1평주 3량의 팔작집이다. 원래는 4칸×1칸의 규모였으나 머릿퇴를 내 달아 부섭지붕을 얹었다. 머릿퇴가 생김으로 대청에는 문을 달아 마룻방으로 꾸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확장 방법은 어색하게 결구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확장 방법은 어색하게 결구됐다. 머릿퇴엔 마루를 깔고 그 앞에 연못을 팠다. 사랑방 문 밑에 머리를 둘러 격식을 갖추었다.

안대문채는 팔작지붕이지만 지붕틀 구조는 우진 각 지붕틀이어서 근래에 변형된 지붕모습임을 알 수 있다. 고간채는 1983년에 신축한 2층 초가지붕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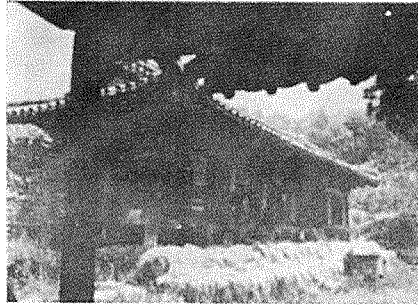
안채는 맞걸이 3량 구조의 ㄱ자집으로 지붕의 변형은 없으나 양끝 모서리에 낮은 바람벽을 1칸 내 쌓아 부엌을 확장했다. 원래의 정지문은 창으로 바꿨고 바람벽위엔 시렁을 얹었고 대청안에 찬장·냉장고·녹음기등을 두어 주로 식사에 이용한다. 취사는 프로판가스를 이용하며, TV 시청은 안방에서 한다. 한방과 작은방 앞에 쪽마루를 달았고 안채 뒤부분도 퇴를 내 마루와 개울개로 이용한다.

□ 박형기 가옥

건립연대 안 채 1930년대  
사랑채 1938년

구 조 목조·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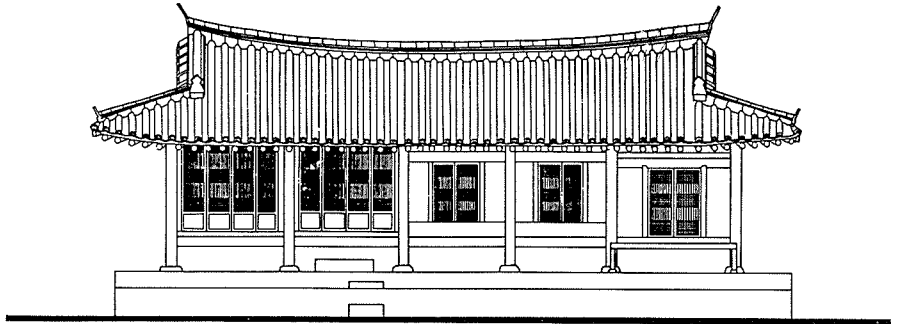
마을 도로 확장때 안채의 위치를 옮겨 원형을 알기는 어렵다. 대문도 철대문으로 개조했고 문에 6색의 띠를 칠해 원 주인의 집안이 6형제집이었음을 나타낸다 한다. 안채는 평주 3량의 팔작집으로 정지간을 분할 해 정지방을 들이고 방에 이해 규모가 큰 대청을 개방했다. 대청 상부는 제대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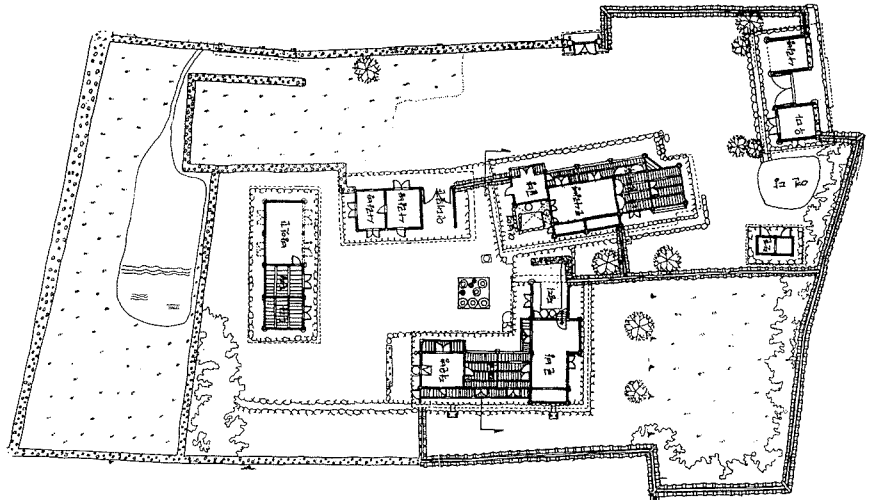
소요각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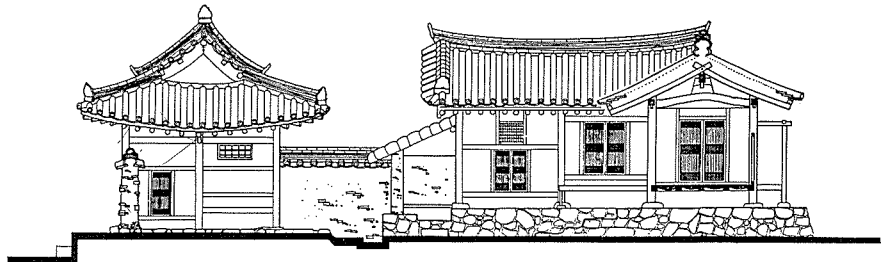
소요각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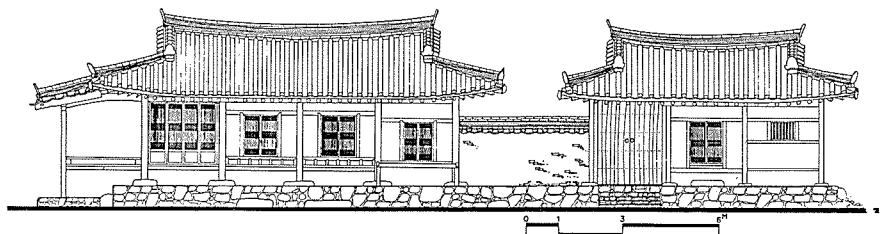
소요각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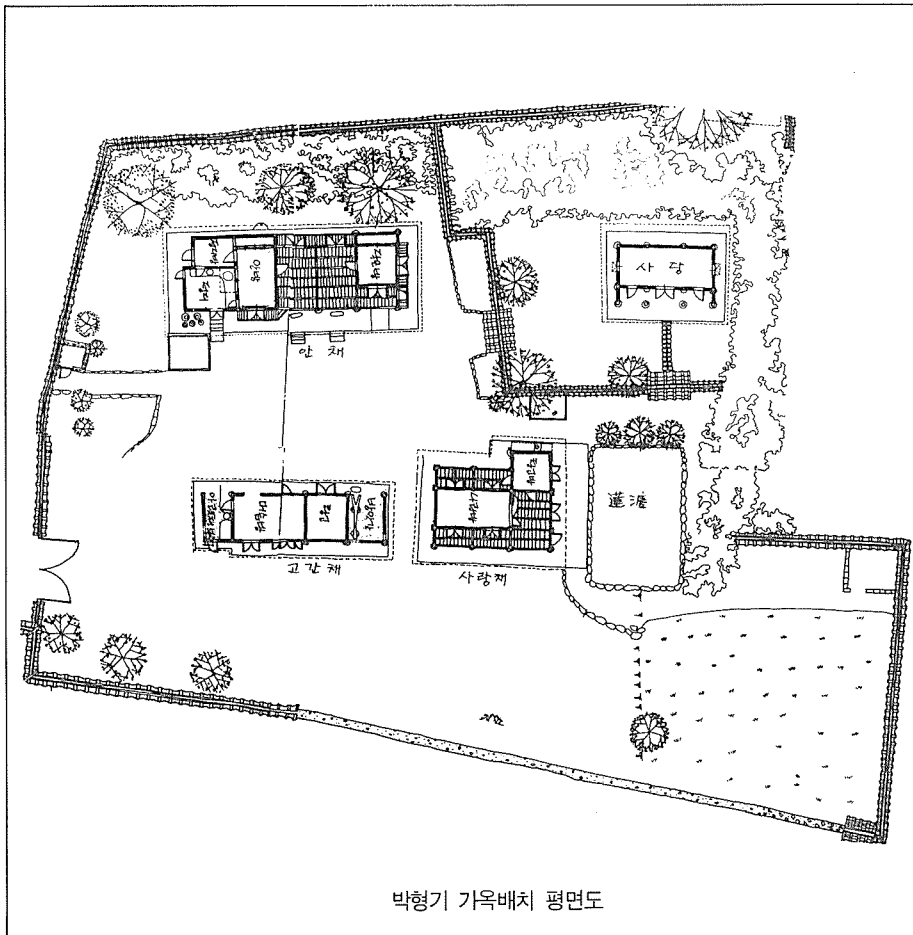
도곡재 배치 평면도



도곡재 종단면도



도곡재, 사랑채, 중문채 정면도



박형기 가옥배치 평면도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일제기에 일기 시작한 근세형의 평면형식과 구조 유형이다. 현재 과리인은 상당한 문화생활을 선호해 안방에는 비디오 레코더와 T.V·전축등을 구비했고, 노모가 사는 작은방에도 역시 T.V·전축등을 구비해 마을 사람들의 안방극장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안방과 작은방 앞엔 각각 실마루를 가설했고, 작은방 앞 뒷마루 밑을 파 아궁이를 설치했다.

3칸 전후퇴집인 사랑채는 2고주 5량의 구조를 가지며 사랑마루 앞에 「錦繡館」이라는 현관을 걸었다. 1982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해 지붕 형태에 상당한 변형을 가져왔다. 보수때 모든 목재에 자주색 유성 페인트를 칠했고 천장도 합판으로 마감했다. 戊寅三月二十三日로 상량문이 적혀 있고, 뒤퇴에 마루를 깔아 안마당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또한 사랑마루 동쪽에 연못을 파, 사랑채 뒷면과 옆면의 쓰임새가 활발한 반면 전면은 좁고 긴 사랑채와 고간채에는 50년대에 사용하던 세간 살이들이 보관돼 있다.

묘골에서는 유일한 家廟가 이 집에 있다. 3칸 전퇴를 개방한 전형적인 형식으로 행방 후 지어진 것이며 집 규모에 비해서는 큰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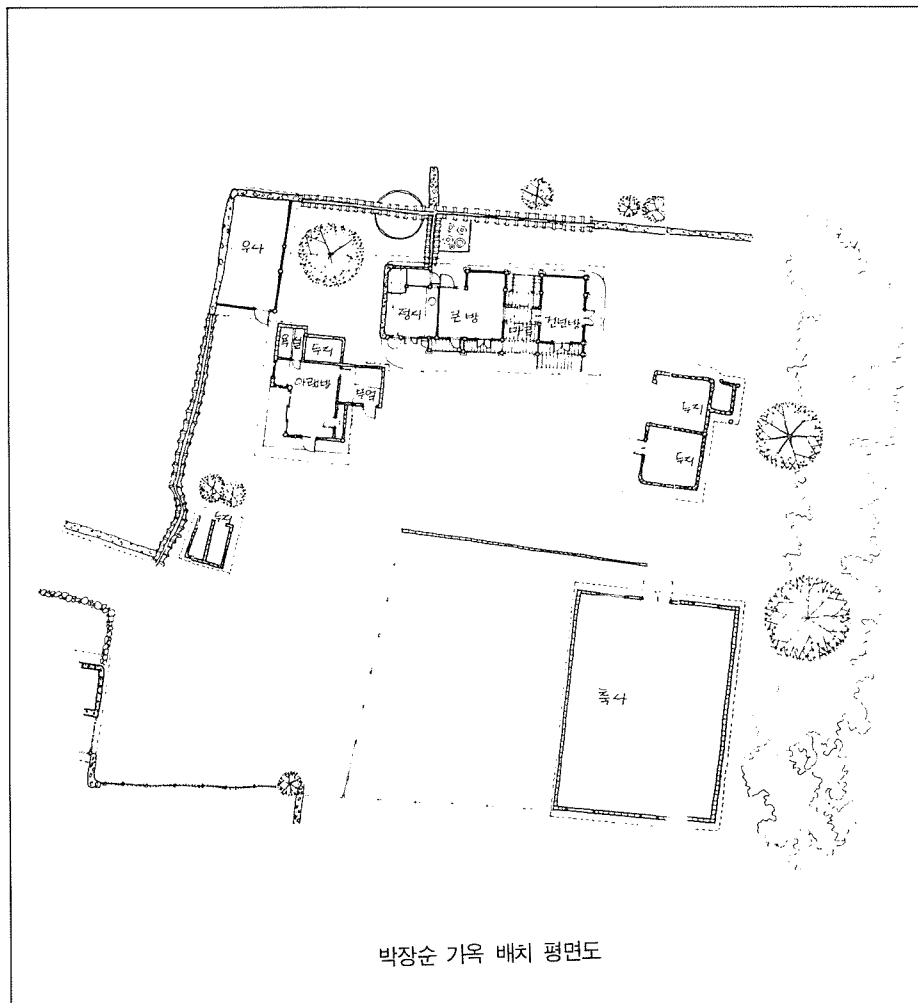
□박장순 가옥

건립연대 1856년

구조 목조·기와

현재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서측의 이삼돌가옥·박종철가옥의 터가 이 집에 속했던 것으로 보아 예전엔 상당히 넓은 대지였다. 현재도 앞마당에 30평 규모의 축사를 지어 26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어 넓은 터에 자리잡았다.

안채 건넌방 앞에는 누마루가 설치돼 고간채 부분에 있었던 연당에 뉘시를 드리우며 놀았다는 고증이 있을 정도로 예전엔 상류층의 주거형식이었을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校吏宅으로 불리었다 한다. 안채는 1평주 3량의 민가형식이나 현존하는 마음내 건물중 가장 오래된 연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대청 위엔 시렁을 달았고 대청 안에 찬장 냉장고들을 두어 수납공간으로



박장순 가옥 배치 평면도

이용한다. 큰방이 현재는 1.5칸 규모이나 원래 부엌이 좁아졌고, 따라서 서측 반칸을 휴담으로 내썩었다. 부엌뒤엔 우물이 있는 독립된 작업마당을 갖추었다. 큰 방 전면에는 머름을 두르고 건넌방 누마루에는 평난간을 두르는 등 규모는 작으나 부분부분의 격은 상당한 짜임새를 보여준다. 대청 위 종도리에 적힌 상량문은 아래와 같다.

龍 宗禎起元後四丙辰

三月初三日申時 入柱

사랑채에 해당할 아랫채는 원래 2칸 1자집이었을 것이나 현재는 블럭조로 각 부분을 개조해 원 상태를 알기 어려우며 전세로 임대 가구가 거주한다.

고간채는 2칸 우진각지붕집으로 왜기와의를 얹었다.

□박설규 가옥

건립연대 안 채 18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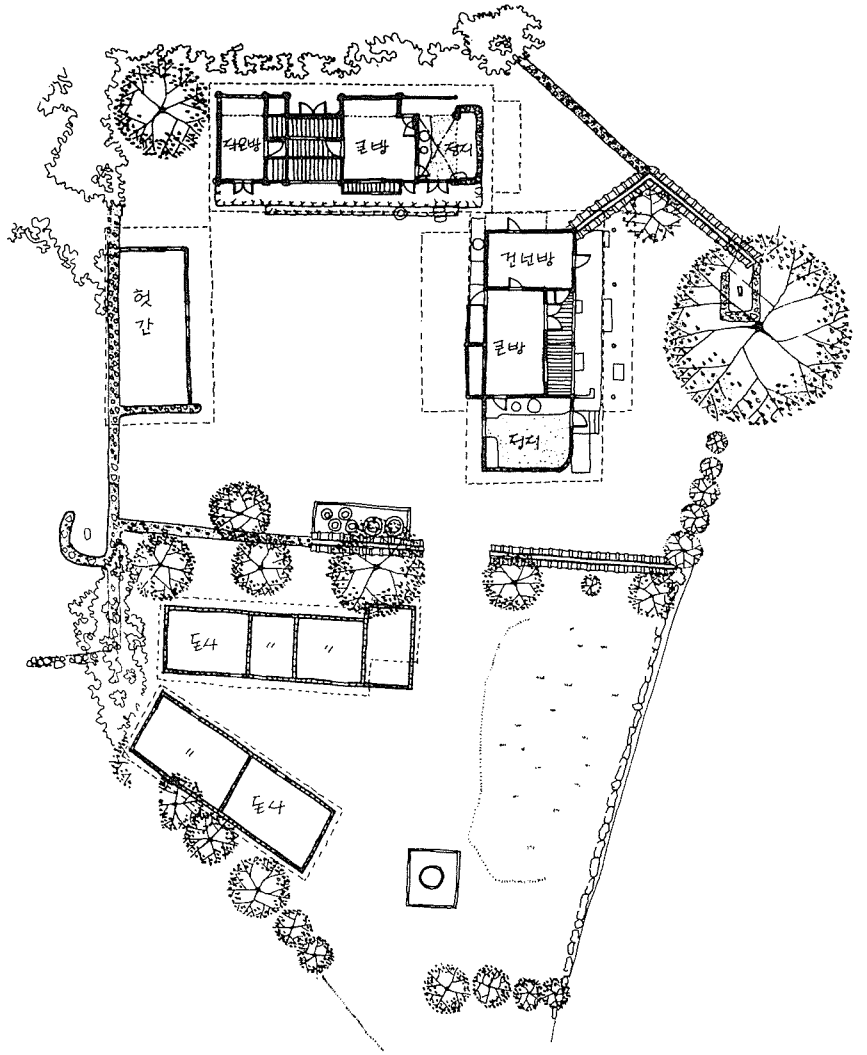
사랑채 1960년대

구 조 안 채 목조·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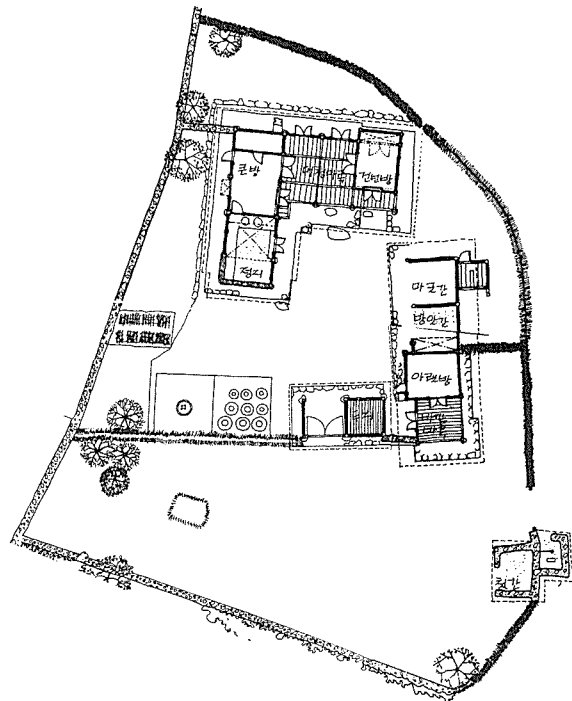
사랑채 목조·슬레이트

中岸에 남아 있는 3채의 집들은 배치형식상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건물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지만 사랑채는 광 방아실등 작업공간과 사랑방이 결합된 건물로 순수한 사랑채라 하긴 어렵다. 비교적 순수 班家에 가까운 東岸의 사랑채와는 달리 사랑채의 격이 낮아 독립된 사랑마당을 갖지 못하고 안마당에 접속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민가와는 달리 대문과 중문사이 독립된 마당을 갖는다. 班家에서는 사랑마당에 속할 이 공간은 작업마당이 된다 즉 班家和 民家 사이의 중간적 형태이 구성을 하는 것이다.

박설규 가옥은 현재 비어 있어 정확한 방 명칭을 알기는 어려웠다. 앞 작업마당엔 2채의 돈사가 남아 있고 중문을 통해 안마당에 통하게 된다. 안채는 4칸-자형의 맞배지붕집이나 종가 철거때 나온 부재들을 뜯어다가 지었기 때문에 부재와 결구와 상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특히 대청칸과 큰방은 1.5칸이며 작은방과 부엌의 칸살은 2m정도밖엔 되지 않아 격식이 없다. 앞뒤없이 맞걸이 3량으로



박설규 가옥 배치 및 평면도



손판돌가옥 배치 및 평면도

구성돼 일반 민가형식을 따른다. 뒷쪽은 수납공간들이 발달하고 부엌 측면을 흙담으로 확장했다. 기단은 막돌을 사용한 2중기간으로 높이가 높다. 현재 안마당은 잡초가 무성하며 기단 앞에 큰 돌석이 남아 있다. 사랑채는 빈약한 부재를 사용한 1평주 3량 집이다. 앞 뒷면에 슬레이트 채양을 길게 내밀어 봉당으로 사용한다. 사랑 정기자 비교적 넓고 방도커 2집살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손판돌 가옥

건립연대 안 채 1860년대

사랑채 1930년대

구 조 안 채 목조·기와

사랑채 목조·슬레이트

역시 독립된 작업마당을 가지며, 우진각지붕의 2칸 중문채를 거쳐 안마당에 진입한다. 대문께 흙담으로 된 측간과 잣간이 있어 농가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맛걸이 3량으로 된 4칸 사랑채는 안마당에 부속되며 대문쪽으로 사랑마루가 개방돼 있다. 초가구조로 부재가 빈약한.

안채는 이 마을 ㄱ자집의 칸살을 변형한 형식이다. 대지의 규모때문에 동서방향의 칸살을 줄여 건물의 전체길이가 짧아졌다. 평명구성은 일반 ㄱ자 집과 같다. 부엌은 반칸 확장해 부엌지붕을 달았다. 기단은 90cm로 높고 집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다. 中岸의 집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기단을 갖는 바, 이는 현재 복개된 개울가에 위치해 습기가 많은 지형인 까닭이다. 작은방 앞 뒷마루는 옆 부분과 높이차이가 없으나 평난간을 둘러 누마루와 같이 사용한다. 이는 아래 기단이 다른 부분보다 낮아 굳이

마루의 높이차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청 상부엔 제대공을 얹었고 대청안에 냉장고·찬장등을 구비해 식사용도와 수납용 공간으로 쓰인다. 앞 처마부분에 함석 채야을 달아 비교적 넓은 기단 전체를 덮고 있다. 대청 마루 밑을 약간 파내 감자광으로 이용해 집의 구석구석을 농사 작업용도에 사용한다. 중문채 옆 장독대는 원래 고간채가 있던 터다. 따라서 안채의 형식은 東岸의 班家와 같지만 안마당의 기능은 주로 작업마당화 하여 富農家로서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註

1)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세보에 실려있다.

“坡回村은 옛날의 하빈현이요 지금은 達城의 河西다. 八公山이 달성의 명산으로 北쪽 아득히 바라보는 곳에 솟아있는 封城의 鎭山이 되고 西는 箕의 架山이며 또 서에서 북으로는 仁同의 遊鶴山이 되고 인동에서 남으로 뻗어 巢鶴과 巨巫가 되니 거무의 서쪽 箕와 達의 교차된 곳이 妙洞인데 동네가 팔공산에서 볼때 회룡암미형이라고 풍수들은 말한다.”(세보 p.43~44)

2) 몇몇 명당임을 나타내는 귀절들은 다음과 같다.

① p.22 순임금이 질그릇 굽던 하빈, 천하의 선비들이 경치를 말할 적에 이 강언덕을 꼽으리라.

② p. 達句代 妙洞福터

③ p.42 龍山이 온자하고 明 하다.

④ p.45 아늑하고 깊으면 좌우 봉우리가 명랑하고 수려하다. 江湖의 운치가 많다.

⑤ p.45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의 취향에 알맞은 곳이다.

3) 송정사는 사육신과 박팽년의 부친인 林仲林의 7인의 위패를 모신 건물인데 이 마을의 가장 높은 터에 가장 큰 콘크리트조 한옥형 건물로 1972년 국가에서 신축했다. 주변의 측대, 담장, 조경물 등을 설치하는 소위 淨化事業은 1981년에 완성되었다. 송정사에서 55m앞에 위치한 외삼문인 솟을 3문에는 六臣祠라는 懸額이 붙어 있다.

4) 윤장섭外, 「태고정과 박황씨가」 건축학회지 16권 44호 72. 2, p.3

5) 南沙등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타성의 경우 대립적인 양반가문이 아닐 때에는 主姓에 종속된

노비이거나 임차농 등이었으며 노비의 경우에는 갑오경장의 노비폐지후 그 후손들이 옛 신분상의 약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거의 다 타지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6) 종가의 사당에서는 본래 사육신중 박씨의 선조인 박팽년선생만 제사지내고 있었는데 선조때 선생의 현손인 박계창이 선생의 기일에 꿈을 꾸매 사육신이 함께 사당 문밖에 있었다. 놀라 꿈을 깨고 다섯분의 제물을 더 치라고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이후로 계속되었다 한다. 이렇게 되어 박씨의 사당이 육신을 위한 範義墓가 된 것이다. 그후 숙종 17년(1691)에 별묘를 춘추로 향제를 지내게 되니 이것이 낙빈서원이다.

7) 달성군; 내고장전통가꾸기, p.214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칩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 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